

레저활동의 유형과 레저만족의 관계

박 세 영[†] 권 혁 철 양 정 희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삼성 CS아카데미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레저활동의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레저만족의 요인을 찾아내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요인별 레저만족도를 밝히며, 레저활동의 유형과 레저만족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결혼상태에 따라 레저활동의 유형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만족척도의 구성요인은 건강, 성취, 흥미, 자기개발, 자유시간, 대인관계의 여섯 가지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전체적 레저만족을 비롯하여 건강, 성취, 흥미, 자기개발, 자유시간 및 대인관계의 모든 요인에서 레저만족의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저활동의 유형에 따라 전체적 레저만족을 비롯한 건강, 성취, 흥미, 자기개발, 자유시간 및 대인관계의 모든 요인에서 레저만족도가 달랐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레저활동유형, 레저만족, 레저만족척도, 요인분석

[†] 교신저자 : 박 세 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psy@chonbuk.ac.kr, 063-270-2929,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노동시간의 단축을 가져와 인간은 레저시간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유래 없는 레저의 대중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레저는 산업화의 산물로서 1960-1970년대의 근대화를 거치면서 중요한 일상적 문화활동이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레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레저문화와 레저시간 활용에 익숙하지 못하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문제에 급급하다 보니, 레저문화를 세련되게 정착시키고 국민의 레저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는 레저활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미약하였다.

레저는 휴식과 기분전환, 재충전을 통해 노동에 대한 활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주로 직무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레저의 비중이 커지면서 사회관계나 레저활동이 생활만족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부분으로 인정되는 추세에 있다.

인간이 왜 레저를 추구하는가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적 요소인 행복의 추구하고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행복은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의 대상이었고,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언급했던 것처럼 행복이야말로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복에 관련된 대다수 연구들은 일상적 용어로서 행복이라는 광범위하고 피상적인 용어보다는 주관적 생활만족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이종길, 1992). 생활만족은 행복의 가장 주된 요소로서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주관적

으로 평가되는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나 변형된 형태인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우선 실시한 뒤 다른 분야로 이를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였다(중앙일보, 2001). 이에 따라 작년에 주5일 근무제의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는 가정은 물론 기업과 산업, 사회, 문화, 국민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고, 특히 레저활동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리라 예상된다.

현대사회에서 각 개인의 레저활동은 그 유형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레저활동의 유형은 그 분류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누어진다. 레저활동의 유형은 개인이 참여하는 레저활동의 특징과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관적인 레저만족 또는 인지정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홍석표, 1991).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이 참여하는 레저활동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레저만족을 느끼게 된다.

레저활동과 생활만족에 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레저활동과 생활만족을 매개하는 변수로서 레저만족에 초점을 두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Han, 1988; Kelly, 1983; Ragheb & Griffith, 1982; Riddick, 1985)은 레저만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다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결국 개인의 레저활동유형과 레저만족 및 생활만족은 유의한 관계가 성립되고, 레저활동유형별 참여에 따라 개인의 레저만족이 결정되며, 그 결과 전반적인 생활만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레저활동유형과 레저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국

내의 경우 이종길(1992), 임번장과 정영린(1995), 김성희(1996)에 의한 몇 편의 연구 이외에는 우리 실정에 맞게 레저활동을 분류하고 그 활동 유형별 구체적인 레저만족의 정도 즉, 레저의 구성요인별 레저만족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레저만족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알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레저만족척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뒤, 레저활동이 레저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전체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레저문화 형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레저활동의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무엇보다도 각 개인의 레저만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ard와 Ragheb (1980)가 개발한 레저만족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레저만족의 구성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레저만족도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레저활동의 유형이 레저만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레저의 개념

건전한 레저활동은 생활에 여유와 활력을 주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대인관계 개선에 이바지한다. 또한, 레저는 인간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레저행위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단순한 자유시간이기보다 내

재적인 만족을 주는 자유정신(free spirit)과 관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저를 여가(餘暇) 내지 남은 시간이라는 잔여시간설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원래 여가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일본 大正 13년(1924년) 오사카시의 노동통계에서였다. 그 당시 공장노동자가 하루 10~12시간의 노동으로 거의 휴식시간이 없을 때 처음으로 사용되어 그 이후부터 일상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즉, 여가라는 단어 자체는 노동주체자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손대현, 장희정 편저, 1997, p. 1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 의미인 ‘레저’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레저를 정의하고 조작하는 접근법은 두 가지 준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레저활동의 원인으로서는 현상의 유형이다. 현상유형에는 주관적 현상과 객관적 현상으로 구분된다. 객관적 현상의 정의란 활동, 상황 및 시간에 따라 레저를 정의하고, 주관적 현상의 정의란 경험, 만족 또는 의미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객관적 현상으로 레저를 측정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레저 활동에 자주 참여하고,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레저유형은 어떠한 것이며,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는지를 파악한다. 한편, 주관적 현상으로서 레저를 알아본다면, 연구자들은 레저활동과 상황에서 피험자들이 무엇을 경험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연구자들은 레저연구에서 레저를 누가 결정하고, 무엇이 레저인지에 대한 정의적 견해에 의존할 수 있다. 이 정의적 견해는 피험자 또는 개인에 따라 외적 및 내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적인 견해가 수용된다면, 무엇이 레저를 구성하는가는 연구자에 의해 결정되고, 연구대상인 개인이나 사람들의 견해보다는 연구자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레저에 대한 외적 정

의는 사회집단 또는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레저라고 동의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내적 관점을 채택하여 레저의 정의를 내린다면 연구대상인 개개인들이 레저라고 지각하거나 해석하는 행동, 환경, 그리고 경험에 근거하게 된다. 즉, 연구자들은 어떤 활동, 장면 혹은 경험이 그들에게 레저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문제를 연구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레저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르고 분야마다 다루는 입장이 제각각이므로 그 개념을 하나로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레저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학자들의 정의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sikszentmihalyi(1981)는 레저를 특별한 활동유형, 의무로부터의 자유시간,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경험 및 이러한 활동, 시간, 경험의 모든 조합으로서 정의한다. Dumazedier(1967)는 레저를 휴식, 여흥 및 개인의 발전으로 구분하였고, Berger(1963)는 레저를 그 내용이 참여자에게 중요한 뜻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오중(1989)은 레저란 노동과 대비적 조건에 있고, 하등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며, 우리 생활 전체 안에서 모든 의무와 책임과 기타 실제로 생활에 필요한 활동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시간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모창배(1993)는 레저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시간적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일상생활 시간 속에서 구속시간, 생활 필요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시간을 레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레저시간 중에 행하는 활동 측면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 즉, 레저는 자유시간에 행하는 활동이나 윤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활동 자체로 사회, 가정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난 활동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휴식, 기분전환, 지식의 확대, 자발적인 사회활동

참가, 개인의 창조에 대한 가능성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레저를 마음의 상태, 경험적인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다. 즉, 레저를 종교적 축제와 관련시켜 시간 또는 생활 개념을 초월한 정신적 감수성에 이어지는 감정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레저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자유시간, 자유정신이 가미된 시간뿐만 아니라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점차 복잡성을 띠고 있는 레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저의 다면성을 포괄하는 개념정의가 요구된다. 김광득(1997)은 레저의 의미로 개인이 가정, 노동 및 기타 대인관계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휴식, 기분전환, 자기계발, 대인관계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게 되는 시간으로 정리하였다.

총체적 관점에서 레저상태의 발생조건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어떠한 활동을 선택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마음상태로 개인적 선택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참여자가 활동 추구 자체로부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셋째, 활동을 통해 참여자는 최적의 각성상태를 경험해야 하고 넷째, 활동을 통해 개인 잠재능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레저상태나 경험은 일상생활 중 어떤 활동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포괄적인 관점과 총체적 관점을 종합하면, 레저는 개인이 가정, 노동 및 기타 대인관계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휴식, 기분전환, 자기계발, 대인관계 성취 등의 레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만족을 얻고자 하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자유시간에 행해지는 자발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

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레저활동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객관적 현상으로 레저를 정의하여 사용하였고, 레저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적 관점에서 레저의 개념을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레저활동유형

레저활동은 서로 비슷한 내면적 특성을 가지며, 각 활동 간에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매우 애매하다. 따라서 레저활동의 유형은 분류한 학자나 기관에 따라서 분류기준과 방법 및 형태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Kelly, Steincamp 및 Kelly(1987)는 레저를 지역조직활동, 문화활동, 관광활동, 가정지향활동, 스포츠 및 운동, 가족활동, 옥외레크리에이션, 사교활동 등의 여덟 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이종길, 이한규, 이병기 및 원형중(1992)은 레저활동유형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레저를 행위자의 레저형태를 기준으로 스포츠, 문화·예술활동 등의 능동적 레저와 독서, 음악감상, 낚잡, 영화관람 등의 수동적 레저로 분류하였으며, 임번장과 정영린(1995)은 레저활동과 레저만족의 관계에서 레저활동유형을 스포츠활동, 취미·교양활동, 관람·감상활동, 놀이·오락활동 등 네 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김종환과 임태성(1995)은 생애주기에 따른 레저참여 유형분석에서 스포츠 및 건강활동, 취미 및 교양활동, 감상 및 관람활동, 오락 및 사교활동, 행락 및 관광활동의 다섯 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서태양과 차석빈(1998)은 여행 및 관광, 문화, 스포츠 및 건강, 사교, 유희 및 오락, 감상 및 관람, 취미 및 교양활동과 흔히 사교활동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활동을 개별유형으로 분리하여 여덟 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 사회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0)의 레저활동 분류는 레저활동을 크게 열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즉, ① 감상 및 관람 ② TV시청 ③ PC관련 ④ 승부놀이 ⑤ 창작적 취미 ⑥ 스포츠 ⑦ 여행 ⑧ 사교관련 ⑨ 가족과 함께 ⑩ 가사잡일 ⑪ 기타로 분류한다. 한국관광공사(1989: 김도희, 1999에서 재인용)의 국민레저생활실태 분석에서 설정한 레저유형은 ① 여행 및 관광부문 ② 모임 및 사교부문 ③ 감상 및 관람부문 ④ 스포츠부문 ⑤ 취미·교양·창작부문 ⑥ 놀이 및 오락부문 ⑦ 기타부문 등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레저활동으로 총 73 개를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레저학자들과 통계청 및 한국관광공사가 분류한 레저활동유형을 분석한 결과와 예비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분류와 유사하게 레저활동유형을 크게 여섯 개 부문 즉, ① 스포츠·건강부문 ② 취미·교양부문 ③ 관람·감상부문 ④ 사교부문 ⑤ 관광·여행·행락부문 ⑥ 놀이·오락부문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레저활동유형에 110개의 구체적인 활동의 예를 선정하였다.

레저만족

산업구조의 변화로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욕구충족 상태를 알아보고 싶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의 척도가 만족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만족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 논쟁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박세영, 1993).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만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직무만족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레저만족은 레저활동과 생활만족 간의 관계를 다룰 때 자주 논의되는 개념이다. 레저만족이란 레저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하는 긍정적 인식 혹은 감정이라 할 수 있다(Beard & Ragheb, 1980). 즉, 레저만족은 레저활동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 및 욕구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또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다(정영린, 1996). 레저활동에서 얻은 만족정도가 크면 클수록 참가자는 그러한 활동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레저만족은 레저활동의 선택 및 참가를 규정하고 그 활동의 지속과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만족스러운 레저생활을 가능케 한다(임변장, 정영린, 1995).

본 연구에서는 레저만족의 개념을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레저활동이나 그 레저활동의 참여 경험을 통하여 개인이 느끼는 즐겁고 유쾌한 정서적 상태나 태도 및 욕구의 만족정도로 보고, Beard와 Ragheb(1980)가 개발한 레저만족척도를 예비연구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도록 구성하였다.

레저활동유형과 레저만족의 관계

레저활동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자아실현 및 자기개발, 그리고 건강 및 행복의 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레저의 역할은 레저활동 경험과 상황에 특정 개인이 갖는 인식과 감정의 상태가 바람직하고 긍정적일 때 더욱 증대될 수 있다. 즉, 레저활동에 있어서 그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레저의 본질적 기능이 발휘된다 하겠다(임변장, 정영린, 1995).

Ragheb와 Griffith(1982)의 레저활동유형별 레저만족도 조사 결과, 스포츠활동과 야외활동이 사회활동, 문화활동, 독서 등에 비하여 레저만족과

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임장번과 정영린(1995)은 서울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442명을 대상으로 레저활동유형과 레저만족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레저활동유형은 만족도의 하위 영역인 성취, 자기개발, 대인관계, 생리적 만족도 각각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수행된 레저활동유형과 레저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고, 그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최학섭, 1997). 특히 국내의 경우, 이종길 등(1992)의 연구를 비롯한 소수의 연구 이외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레저활동유형과 레저만족 척도로 활동 유형별 구체적인 레저만족의 정도 즉, 레저에 대한 요인별 레저만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각기 부분적으로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레저활동유형에 따른 레저에 대한 전체적인 레저만족과 요인별 만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전북대학교에서 성심리학, 조직심리학 및 학습심리학을 수강하는 학부생 약 300명에게 수업시간에 개인마다 4부씩 약 1200여부의 질문지를 네 집단의 연령대(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별로 조사하여 수거하도록 과제를 주었다. 이 중 91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무응답이 많은 5부를 제외한 90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 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자	418	46.1
	여자	488	53.9
연 령	20대 이하	296	32.7
	30대	208	23.0
	40대	214	23.6
	50대 이상	188	20.8
교육수준	고졸이하	304	33.6
	대학재학중	263	29.0
	대졸(전문대 포함)	274	30.2
	대학원 재학 중 또는 졸업	64	7.1
	무응답	1	0.1
총수입	120만원 미만	109	12.0
	120-150만원 미만	127	14.0
	150-200만원 미만	215	23.7
	200-250만원 미만	180	19.9
	250-300만원 미만	119	13.1
	300만원 이상	144	15.9
	무응답	12	1.3
직 업	생산직 및 노무직	33	3.6
	판매직	41	4.5
	서비스직	94	10.4
	사무직	78	8.6
	연구기술직	16	1.8
	행정관리직	35	3.9
	전문직	103	11.4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31	3.4
	가정주부	186	20.5
	학생	267	29.5
	기타	19	2.1
	무응답	3	0.3
	결혼상태	기혼	539
미혼		349	38.5
기타		12	1.3
무응답		6	0.7
전 체		906	100.0

도구

본 연구는 레저활동유형과 레저만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레저활동유형, 레저만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부록).

먼저, 레저활동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레저활동유형 질문의 1번 문항은 최근에 자주 참여하는 레저활동의 유형과 구체적인 예를 조사한 기입식 질문이고, 2번 문항은 일주일 동안 레저활동으로 보내는 시간과 한 달 동안 레저활동에 투자하는 평균 비용을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번 문항은 향후 레저활동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매우 감소할 것이다(1점)'에서 '매우 증가할 것이다(5점)'까지의 5점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4번 문항은 향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레저활동유형과 구체적인 예를 알아보기 위해서 1번 문항과 같이 기입식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레저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Beard와 Ragheb(1980)가 개발한 레저만족척도의 24개의 문항 중 레저만족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 환경적인 요인에서 네 문항, 대인관계 요인에서 중복되는 한 문항, 자기개발 요인에서 한 문항을 포함하여 총 여섯 문항을 제외시켰고, 전문가의 자문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14번, 16번, 19번 문항과 예비조사의 개방형 질문으로 얻은 22번부터 26번까지의 다섯 개 문항을 첨가하여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서 Cronbach의 α 는 .91이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총수입, 직업, 결혼여부를 알아보았다.

자료 분석

SPSS/PC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든 변수들에 대해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레저활동유형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에 따른 레저만족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F 검증을 실시하였다. 레저만족도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는 Cronbach의 Alpha 계수를 계산하였다. 레저만족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체적 레저만족과 요인별 레저만족의 관계는 상호상관을 계산하였다.

결 과

레저활동 실태

주간 레저활동 참여시간

응답자들이 레저활동을 위해 일주일 동안 평균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응답자들이 레저활동을 위해 일

표 2. 주간 레저활동 참여시간

참여시간	빈도(명)	백분율(%)
5시간 이하	332	36.8
6-10시간	264	29.3
11-20시간	196	21.7
21-30시간	78	8.6
31-40시간	18	2.0
41-50시간	7	0.8
51-60시간	3	0.3
61시간 이상	4	0.4
계	902	100.0

주일 동안 투자하는 시간을 보면, 평균 10.9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시간 이하가 3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10시간이 29.3%, 11-20시간이 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동안 레저에 투자하는 시간이 평균 20시간 이하인 응답자들이 8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활동을 위한 월 평균비용

레저활동을 위해 응답자들이 한 달에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응답자들이 레저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월 평균비용은 약 7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2.5만원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10만원 이하가 84.9%를 차지함에 따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레저활동을 위해 한 달에 10만원 이하의 레저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고 싶은 레저활동유형 및 레저활동시간과 비용의 변화

앞으로 가장 참여하고 싶은 레저활동유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앞으로

표 3. 레저활동 비용

비 용	빈도(명)	백분율(%)
1만원 이하	196	21.8
2-5만원	369	41.0
6-10만원	199	22.1
11-20만원	95	10.5
21-30만원	20	2.2
31-40만원	6	0.7
41-50만원	4	0.4
51만원 이상	12	1.3
계	902	100.0

표 4. 참여하고 싶은 레저활동유형

유형	빈도(명)	백분율(%)
스포츠·건강	297	32.8
취미·교양	153	16.9
관람·감상	69	7.6
사교	86	9.5
관광·여행·행락	254	27.0
놀이·오락	47	5.2
기타	9	1.0
계	906	100.0

가장 참여하고 싶은 레저활동유형을 보면, 스포츠·건강부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광·여행·행락부문, 취미·교양부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자신의 레저활동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향후 레저활동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38.6%), 증가할 것이다(38.5%), 그리고 감소할 것이다(16.1%)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3.34로서, 응답자들은 향후 레저활동의 시간과 비용에서 약간의 증가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레저활동 시간과 비용의 변화

변 화	빈도(명)	백분율(%)
매우 감소할 것이다	4	0.4
감소할 것이다	144	16.1
변하지 않을 것이다	346	38.6
증가할 것이다	345	38.5
매우 증가할 것이다	57	6.4
계	906	100.0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레저활동유형

레저활동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총수입, 직업, 근무기간, 결혼상태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6-1과 표 6-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스포츠·건강 부문의 레저활동에 응답한 사람들이 약 3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람·감상의 레저활동유형(20.2%), 놀이·오락부문(16.2%), 취미·교양부문(13.7%), 사교부문(11.5%), 관광·여행·행락부문(6.3%) 순으로 레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레저활동유형을 살펴보면, 표 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로는 스포츠·건강부문($\chi^2=16.388, p<.001$), 취미·교양부문($\chi^2=22.218, p<.001$), 관람·감상부문($\chi^2=29.079, p<.001$) 및 놀이·오락부문($\chi^2=20.30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스포츠·건강부문($\chi^2=34.004, p<.001$), 관람·감상부문($\chi^2=46.923, p<.001$), 사교부문($\chi^2=20.512, p<.001$), 관광·여행·행락부문($\chi^2=12.405, p<.01$) 및 놀이·오락부문($\chi^2=30.36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스포츠·건강부문($\chi^2=43.043, p<.001$), 관람·감상부문($\chi^2=35.114, p<.001$), 사교부문($\chi^2=11.629, p<.01$), 관광·여행·행락부문($\chi^2=14.716, p<.01$) 및 놀이·오락부문($\chi^2=29.330,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총수입별로는 모든 레저활동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과 결혼상태에 따라서는 표 6-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스포츠·건강부문($\chi^2=41.944, p<.001$), 관람·감상부문($\chi^2=19.221, p<.05$), 취미·교양부문($\chi^2=47.098, p<.001$) 및 놀이·오락부문($\chi^2=34.48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스포츠·건강부문($\chi^2=18.217, p<.001$), 관람·감상부문($\chi^2=29.800,$

$p<.001$), 사교부문($\chi^2=13.989, p<.05$), 관광·여행·행락부문($\chi^2=13.409, p<.001$) 및 놀이·오락부문($\chi^2=24.080, p<.001$)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레저만족척도의 요인구성

레저만족척도의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 varimax 회전을 하여 주성분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적 레저만족척도의 신뢰도(Cronbach의 α)는 .91이었고, 각 요인별 α 계수는 요인 1부터 요인 6까지 차례대로 각각 .84, .83, .75, .70, .74, 그리고 .90으로 나타났다.

표 7의 요인분석 결과, 여섯 개 요인의 전체 설명변량은 63.9%이다. 요인 1은 공통변량의 31.7%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곱 개의 문항이 일관되게 정신과 신체적 건강을 나타내는 문항으로서 ‘건강’ 만족요인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요인 2는 공통변량의 9.4%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섯 문항이 모두 성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성취’ 만족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공통변량의 7.2%를 설명하고 있는데, 네 문항이 흥미와 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문항이므로 ‘흥미’ 만족요인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요인 4는 공통변량의 6.4%를 설명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를 제외한 네 문항이 지식습득과 삶의 질의 풍요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기개발’ 만족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5는 공통변량의 5.1%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요인에 포함된 세 문항이 자유와 여유에 관한 문항으로서 ‘자유시간’ 만족요인이라 명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 6은 두 개의 문항으로서 공통변량의 4.0%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요인에 포함된 두 문항이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대인관계’ 만족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표 6-1

KCS I

KCS I

표 7. 레저만족척도의 요인분석

내용(문항번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건강	성취	흥미	자기개발	자유시간	대인관계
피로 해소(21)	.752	.063	.194	.110	.153	-.019
휴식(18)	.655	-.210	.200	.270	.231	.052
에너지 충전(14)	.645	.260	.180	.044	.132	.083
건강 활력(17)	.630	.424	.098	-.059	.109	.283
정신 건강(20)	.615	.273	.218	.276	.151	.029
신체 건강(13)	.596	.578	-.168	-.164	.028	.256
정서적 안정(4)	.458	.195	.368	.320	.167	-.056
성취감(6)	.031	.752	.219	.160	.158	.056
자부심(8)	.145	.740	.151	.259	.076	.179
기량과 능력 발휘(3)	.091	.699	.328	.151	.037	.083
신체 능력 시험(12)	.384	.662	-.074	-.167	.053	.350
자아 발견(7)	.170	.627	.095	.356	.123	.105
흥미(1)	.051	.296	.740	.150	.087	.051
레저자체 애호(9)	.236	.073	.657	.054	.183	.215
스트레스 해소(2)	.387	.213	.626	-.087	.059	.097
생활의 따분함 탈출(16)	.130	.024	.596	.165	.270	.208
지식습득(15)	-.041	.052	.112	.797	.119	.013
새로운 것을 경험(5)	.048	.282	.262	.639	.103	.081
삶의 질 풍요(19)	.374	.237	.246	.538	.125	.076
가족과 함께(22)	.394	.019	-.246	.483	-.032	.094
일 혹은 직업에 도움(26)	.176	.209	-.180	.453	.309	.278
자유로움(24)	.174	.120	.214	.080	.818	.120
나만의 시간(23)	.260	.110	.151	.100	.784	-.228
생활의 여유(25)	.363	.108	.173	.252	.568	.115
사회적 교류(10)	.043	.220	.255	.107	-.023	.853
대인관계(11)	.108	.233	.202	.138	-.012	.850

전체적 레저만족도와 요인별 레저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 변수간의 상호상관을 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적 레저만족은 모든 요인별 만족과 높게 상관되어 있고, 특히 건강 및 성취 만족과의 상관이 각각 .848과 .802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레저만족

표 9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레저만족이다. 레저만족에 대한 요인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건강 만족 3.49, 성취 만족 3.20, 흥미 만족 3.97, 자기개발 만족 3.11, 자유시간 만족 3.51, 대인관

표 8. 전체적 레저만족도와 요인별 만족도의 상호상관

레저만족	전체적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전체적 만족	-						
건강 만족	.848**	-					
성취 만족	.802**	.582**	-				
흥미 만족	.676**	.488**	.438**	-			
자기개발 만족	.712**	.481**	.464**	.326**	-		
자유시간 만족	.621**	.486**	.332**	.438**	.403**	-	
대인관계 만족	.541**	.331**	.471**	.373**	.280**	.103**	-

** $p < .01$

계 만족 3.40, 그리고 전체적인 만족은 3.43으로 보통($M=3.00$)보다 높게 나타나 레저활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미요인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전체적 레저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령($F=8.738, p < .001$), 교육수준($F=7.459, p < .001$), 직업($F=3.049, p < .001$), 결혼상태($F=9.787, p < .001$)에서 유의하게 달랐지만, 성별과 총수입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Scheffe 검증(이하에서 사후검증으로 표현) 결과,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보다 30대, 40대 및 50대 이상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 재학 중인 응답자보다 고졸 이하와 대졸자들이 만족도가 높았다. 직업에 따라서는 학생보다 전문직이 전체적인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만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 만족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연령($F=15.707, p < .001$), 교육

수준($F=13.927, p < .001$), 직업($F=5.104, p < .001$), 결혼상태($F=19.286,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성별과 총수입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사후검증 결과, 20대 이하보다 30대, 40대 및 50대 이상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학 재학 중인 응답자보다 고졸 이하와 대졸자들이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학생보다 전문직과 가정주부가 건강 만족의 정도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 만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성취 만족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성별($F=12.787, p < .001$), 연령($F=15.566, p < .001$), 교육수준($F=14.611, p < .001$), 직업($F=4.533, p < .001$) 및 결혼상태($F=13.759,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총수입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사후검증 결과, 여자보다 남자, 20대 이하보다 30대, 40대 및 50대 이상이 더 만족하였다. 대학

표 9.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레저만족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 수		전체적만족	건강	성취	흥미	자기개발	자유시간	대인관계
성 별	남자	3.46(.63)	3.52(.85)	3.31(.87)	4.01(.67)	3.03(.80)	3.45(.90)	3.60(1.09)
	여자	3.40(.55)	3.46(.69)	3.10(.87)	3.94(.66)	3.18(.69)	3.56(.82)	3.23(1.05)
연 령	20대 이하	3.29(.62)	3.26(.82)	2.92(.93)	4.05(.66)	2.97(.79)	3.56(.90)	3.18(1.09)
	30대	3.48(.53)	3.51(.69)	3.35(.79)	3.97(.67)	3.17(.74)	3.57(.81)	3.43(1.14)
	40대	3.53(.54)	3.69(.65)	3.36(.81)	3.94(.62)	3.21(.67)	3.49(.83)	3.46(1.02)
	50대 이상	3.48(.61)	3.60(.79)	3.31(.84)	3.89(.73)	3.15(.72)	3.39(.88)	3.66(1.02)
교 육 수 준	고졸이하	3.45(.58)	3.55(.72)	3.27(.85)	3.89(.69)	3.15(.71)	3.42(.87)	3.51(1.08)
	대학재학중	3.30(.60)	3.24(.81)	2.92(.92)	4.08(.62)	2.99(.78)	3.58(.88)	3.19(1.09)
	대졸	3.54(.55)	3.64(.70)	3.39(.80)	3.96(.67)	3.18(.71)	3.57(.81)	3.52(1.03)
	대학원 재학중 또는 졸업	3.44(.63)	3.53(.84)	3.30(.80)	3.94(.70)	3.13(.85)	3.37(.90)	3.28(1.18)
총 수 입	120만원 미만	3.32(.67)	3.38(.94)	3.11(1.03)	3.95(.70)	3.00(.77)	3.35(.94)	3.15(1.19)
	120-150만원 미만	3.38(.52)	3.43(.60)	3.07(.79)	3.93(.62)	3.12(.72)	3.52(.87)	3.37(1.06)
	150-200만원 미만	3.43(.58)	3.51(.80)	3.24(.85)	3.96(.63)	3.11(.75)	3.51(.87)	3.33(1.06)
	200-250만원 미만	3.44(.58)	3.47(.74)	3.26(.87)	3.97(.69)	3.08(.71)	3.51(.76)	3.52(1.08)
	250-300만원 미만	3.50(.54)	3.54(.71)	3.28(.84)	4.02(.65)	3.17(.70)	3.56(.87)	3.59(1.01)
	300만원 이상	3.49(.63)	3.58(.79)	3.23(.88)	3.98(.73)	3.19(.82)	3.56(.89)	3.45(1.10)
직 업	생산직, 노무직	3.50(.66)	3.62(.82)	3.19(.94)	4.00(.66)	3.12(.86)	3.52(.86)	3.80(1.11)
	판매직	3.49(.59)	3.55(.80)	3.35(.81)	3.89(.76)	3.27(.65)	3.41(.82)	3.78(1.03)
	서비스직	3.43(.65)	3.54(.77)	3.27(.88)	3.88(.79)	3.17(.74)	3.34(.97)	3.41(1.14)
	사무직	3.47(.51)	3.56(.71)	3.32(.83)	3.87(.64)	3.15(.69)	3.53(.75)	3.46(1.05)
	연구기술직	3.71(.52)	3.86(.64)	3.65(.78)	4.07(.41)	3.05(.87)	3.88(.70)	3.34(.94)
	행정관리직	3.51(.74)	3.64(.91)	3.30(.89)	3.93(.81)	3.31(.86)	3.43(.87)	3.54(1.25)
	전문직	3.58(.59)	3.68(.69)	3.38(.81)	4.06(.61)	3.25(.77)	3.58(.92)	3.59(1.07)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3.39(.59)	3.43(.77)	3.30(.95)	3.75(.67)	3.05(.73)	3.38(.85)	3.66(1.02)
	가정주부	3.49(.49)	3.60(.59)	3.33(.75)	3.93(.65)	3.17(.62)	3.51(.77)	3.40(1.05)
	학생	3.29(.60)	3.23(.82)	2.92(.94)	4.06(.63)	2.97(.78)	3.55(.90)	3.19(1.10)
	기타	3.40(.56)	3.53(.87)	3.23(.73)	3.96(.65)	2.87(.91)	3.74(.83)	2.87(1.16)
결 혼 상 태	기혼	3.50(.56)	3.62(.70)	3.33(.82)	3.92(.68)	3.19(.71)	3.48(.83)	3.52(1.07)
	미혼	3.33(.60)	3.30(.81)	3.02(.93)	4.06(.64)	2.99(.78)	3.58(.88)	3.24(1.09)
	기타	3.24(.69)	3.35(.82)	3.15(.94)	3.79(.76)	3.03(.79)	3.00(1.12)	2.92(.97)
전 체		3.43(.59)	3.49(.77)	3.20(.87)	3.97(.67)	3.11(.74)	3.51(.86)	3.40(1.08)

주. ()의 값은 표준편차

재학 중인 응답자보다 고졸 이하, 대졸 및 대학원 재학 중 또는 졸업자가 더 높았으며, 직업에 따라서는 학생보다 전문직과 가정주부가 성취 만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 만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흥미 만족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교육수준($F=3.714, p<.05$)과 결혼 여부($F=5.281,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 연령별, 총수입,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검증 결과, 고졸 이하보다 대학 재학 중인 응답자가 더 높았으며,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더 높은 흥미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발 만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기개발 만족을 분석한 결과는 성별($F=8.533, p<.01$), 연령별($F=5.252, p<.001$), 교육수준별($F=3.441, p<.05$), 직업별($F=2.225, p<.05$) 및 결혼상태($F=8.254,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총수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후검증 결과, 남자보다 여자, 20대 이하보다 30대와 40대가 더 만족하였다. 대학 재학 중인 응답자보다 대졸자가 더 높았으며,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시간 만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유시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성별($F=3.923, p<.05$)과 결혼상태($F=3.460,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연령, 교육수준, 총수입 및 직업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보다 여자, 기

혼자보다 미혼자가 더 만족하였다.

대인관계 만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 만족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성별($F=25.374, p<.001$), 연령별($F=8.338, p<.001$), 교육수준별($F=5.881, p<.001$) 및 결혼상태($F=8.62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총수입과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후검증 결과, 여자보다 남자, 20대 이하보다 40대와 50대 이상이 더 많은 만족을 하고 있다. 대학 재학 중인 응답자인 응답자보다 고졸 이하와 대졸자가 더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미혼자보다 기혼자가 더 만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활동유형과 레저만족의 관계

표 10은 레저활동유형에 따른 레저만족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레저활동유형에 따라 전체적 만족($F=26.266, p<.001$), 건강 만족($F=33.777, p<.001$), 성취 만족($F=58.644, p<.001$), 자기개발 만족($F=17.004, p<.001$), 자유시간 만족($F=8.939, p<.001$) 및 대인관계 만족($F=26.59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 만족은 스포츠·건강, 취미·교양 및 관광·여행·행락부문에서 높은 만족을 하고 있고, 관람·감상과 놀이·오락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건강 만족은 스포츠·건강과 관광·여행·행락부문이 높고, 관람·감상, 사교 및 놀이·오락부문이 낮은 것으로, 성취 만족은 스포츠·건강과 취미·교양부문이 높고, 관람·감상과 놀이·오락부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발 만족은 취미·교양과 관광·여행·행락부문이 높고, 스포츠·건강, 사교 및 놀이·오락부문이 낮은 것으로, 자유시간 만족은 취미·교양과 관광·여

표 10. 레저활동유형에 따른 레저만족도의 평균

	전체적인 레저만족	건강 만족	성취 만족	흥미 만족	자기개발 만족	자유시간 만족	대인관계 만족
스포츠·건강	3.68(.48)	3.89(.56)	3.71(.63)	4.05(.60)	3.08(.71)	3.58(.81)	3.72(.98)
취미·교양	3.56(.56)	3.48(.69)	3.54(.72)	3.94(.75)	3.44(.63)	3.79(.79)	3.15(1.14)
관람·감상	3.19(.60)	3.24(.68)	2.52(.79)	3.89(.71)	3.22(.64)	3.49(.93)	2.88(.98)
사교	3.36(.56)	3.24(.77)	3.19(.79)	3.94(.61)	3.05(.72)	3.04(.80)	4.16(.69)
관광·여행·행락	3.63(.40)	3.82(.62)	3.23(.64)	4.07(.52)	3.45(.60)	3.68(.56)	3.49(.84)
놀이·오락	3.12(.60)	3.06(.88)	2.82(.89)	3.94(.74)	2.67(.84)	3.43(.88)	3.10(1.15)
기타	3.60(.53)	3.66(.67)	3.51(.56)	4.09(.76)	3.16(.73)	3.76(.94)	3.45(1.19)

주. ()의 값은 표준편차

행·행락에서 높고, 사교부문에서 낮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만족은 스포츠·건강 사교부문에서 높게, 취미·교양, 관람·감상 및 놀이·오락부문에서 낮았다. 한편, 레저활동유형에 따라 흥미만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논 의

현대사회에서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개개인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레저활동유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의 레저만족도를 객관적이고 신뢰롭게 측정하기 위해서 레저만족척도를 구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레저활동유형은 레저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각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레저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요약하고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몇 가지 사실들을 논의한 후, 의의와 한계점 및 시사받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레저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레저활동을 위해 응답자들이 일주일에 투자하는 시간이 평균 약 11시간이었으며, 레저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7만 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자유시간에서 레저에 투자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입에 비해 레저에 투자하는 비용도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레저의 올바른 인식과 여건 조성을 위해 광범위한 홍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레저에 투자하는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약간의 증가가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도 레저는 사치스럽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음이 드러났다. 가장 참여하고 싶은 레저활동 유형은 스포츠·건강부문과 관광·여행·행락부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앞으로 정적인 레저활동보다는 동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에 더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레저 여건을 동적인 부문에 초점을 맞

출 필요가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레저활동유형들을 살펴보면, 남녀간에 레저활동유형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는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부문에서 여자들은 정적이고 조용한 레저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있어서는 취미·교양부문을 제외한 모든 레저활동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젊을수록 정적인 레저를, 연령이 높을수록 동적인 레저와 사교부문의 레저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령이 높아갈수록 건강에 더 신경을 쓰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레저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취미·교양부문을 제외한 모든 레저활동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대학생이 정적인 레저보다 동적인 레저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이정미(1997)의 연구와 다른 것은 본 연구가 여대생의 빈도가 남학생의 빈도보다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직업에 따라서는 사교부문과 관광·여행·행락부문을 제외한 레저활동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소위 화이트칼라의 직업들(사무, 연구기술, 행정관리, 전문직)은 활동적인 레저에, 블루칼라의 직업(생산·노무, 판매, 농·축·임·수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은 정적인 레저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직업에 따라서 레저활동유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취미·교양부문을 제외한 레저활동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혼자들은 활동적인 레저에 미혼자들은 정적이고 조용한 레저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저만족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건강·성취·흥미·자기개발·자유시간·대인관계 만족의 여섯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Beard와 Ragheb (1980)가 고려했던 요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각 요인의 문항들은 요인 부하량이 .45이상의 비교적 높은 부하량을 보여 레저만족의 각 요인들

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레저만족의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레저에 만족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흥미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응답자들은 레저활동을 통해 어떤 목적 없이 스트레스와 일상생활의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자기개발 만족이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보면 레저활동을 통해 다른 것을 배우기보다 레저 자체를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만족도에서 20대 이하가 가장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만족 요인에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성취만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개발 만족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자유시간 만족도는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 만족도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총수입, 직업, 결혼상태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흥미 만족요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응답자들이 레저에 대해 다소 만족은 하고 있지만, 좀더 큰 만족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자신에게 꼭 맞아서 즐길 수 있는 레저를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레저활동유형과 레저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레저활동유형에 따라 전체적, 건강, 성취, 자기개발, 자유시간 및 대인관계 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 만족은 스포츠·건강, 취미·교양 및 관광·여행·행락부문에서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고, 관광·감상 및 놀이·오락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건강 만

족은 스포츠·건강 및 관광·여행·행락부문에서 높고, 관람·감상, 사교 및 놀이·오락부문에서 낮은 것으로, 성취 만족은 스포츠·건강 및 취미·교양부문이 높고, 관람·감상 및 놀이·오락부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발 만족은 취미·교양 및 관광·여행·행락부문이 높고, 스포츠·건강, 사교 및 놀이·오락부문이 낮은 것으로, 자유시간 만족은 취미·교양 및 관광·여행·행락부문에서 높고, 사교부문에서 낮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만족은 스포츠·건강 및 사교부문에서 높게, 취미·교양, 관람·감상 및 놀이·오락부문에서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스포츠·건강, 취미·교양 및 관광·여행·행락부문에서 높게, 관람·감상 및 놀이·오락부문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적인 레저활동보다는 동적인 레저활동에서 더 높은 레저만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레저활동에 따른 레저만족도를 측정하고자 레저만족을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일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레저활동유형과 레저만족도를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레저활동유형과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레저현실을 구체화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전반적인 연령대와 직업 등을 살펴 보기는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라북도 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정된 지역, 직업 및 총수입 등에서 벗어나 더 광범위한 실증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레저만족이 생활만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레저활동유형별 생활만족도에 대한 관련 정도의 차

이는 비교적 많은 연구들에 의해 규명되고 있다 (Kell, 1987; Kelly, Steinkamp, & Kelly, 1987).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어느 한 영역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연구했을 뿐이다. 차후 연구에서는 더 광범위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첨가하여 생활만족도와 레저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레저활동을 통해 레저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개인의 레저에 대한 인식의 선진화 즉,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레저의식으로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가시적인 결과보다는 자기개발 및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레저활동에 계획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레저생활이 비용이나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고 대중화될 수 있도록 저렴하고 다양한 레저자원 개발 및 시설의 확보가 중요한데, 특히 공원, 운동장 등의 활동형 시설개발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하고, 자아실현적 레저시설인 박물관, 도서관 등도 더욱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합한 레저활동을 선택하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통해 레저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이며 레저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을 대중매체나 문화단체 소식지, 각종 동호회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레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도를 높여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레저에 대한 인식의 선진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생활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레저정책의 방향제시에 일조를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광득 (1997).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백산출판사.
- 김도희 (1999). 레저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중년기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성희 (1996). 도시 주부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 유형 및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5(1), 78-96.
- 김영례 (1993).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오중 (1989). 레크리에이션의 본질과 그 의의에 관한 논총. 한국체육학회지, 28(2), 36-62.
- 김종환, 임태성 (1995). 생애주기에 따른 여가참여 유형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4(3), 115-138.
- 모창배 (1993). 여가활동 참여유형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세영 (1993). 형평구성요인, 직무만족 및 전직의 사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태양, 차석빈 (1998). 여가론. 서울: 대왕사.
- 손대현, 장희정 (1997). 리조트의 철학. 서울: 백산출판사, 110-111.
- 이정미 (1997). 대학생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의 관계.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길 (1992). 사회체육활동과 생활만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종길, 이한규, 이병기, 원형중 (1992). 여가활동 유형별 생활만족도의 변화에 대한 분석. 체육과학논총, 3(1), 96-126.
- 임변장, 정영린 (1995).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4(3), 83-119.
- 정영린 (1996). 생활체육참가와 여가만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중앙일보 (2001, 7, 28). 6월 중 산업활동 동향. 3면.
- 최학섭 (1997). 초등학교 아동의 여가활동과 여가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00). 사회통계조사보고서(문화와 여가·교육부문).
- 홍석표 (1991).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인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eard, J. B., & Ragheb,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26-38.
- Beger, B. M. (1963). The sociology of leisure: some suggestion. In E. O. Smigel(Ed.), *Work and Leisure*, New Haven, Conn: College and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9).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Csikszentmihalyi, M. (1981). Leisure and socialization. social fo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60, 332-340.
- Dumazedier, J. (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ew York: The Free Press.
- Han, S.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flow in elderly Korean immigrants. In M. Csikszentmihalyi, & I. S. Csikszentmihalyi (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y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8-149.
- Kelly, J. R. (1983). Leisure styles: A hidden core.

- Leisure Sciences*, 9, 189-199.
- Kelly, J. R. (1987). *Peoria winter: Styles and resources in later life*. Lexington, MA: Heath.
- Kelly, J. R., Steincamp, M. W., & Kelly J. R. (1987). Later-life satisfaction: Does leisure contribute?. *Leisure Sciences*, 9, 189-199.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agheb, M. G., & Griffith, C. A. (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 295-306.
- Riddick, C. C. (1985). Life satisfaction determinants of older males and females. *Leisure Sciences*, 7(1), 47-63.
- 1 차원고접수 : 2004. 4. 7.
수정원고접수 : 2004. 6. 2.
최종게재결정 : 2004. 6. 10.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Leisure Activity and Leisure Satisfaction

Sea-Young Park

Hyeok-Cheol Kwon

Jeong-Hee Ya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amsung CS Academy

This study present the types of leisure activity and the degree of leisure satisfaction on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leisure activity and leisure satisfaction, through examining factor structure in leisure satisfaction scale. The types of leisure activity appeare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age, education level, career, and marriage state. The factor structure of leisure satisfaction shows that it consist of six factors (health, achievement, interest, self-development, free time, and personal relations). The leisure satisfactions in overall, health, achievement, interest, self-development, free time, and personal relation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variables. The leisure satisfactions in overall, health, achievement, interest, self-development, free time, and personal relation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s of leisure activity. Finally, we discussed significance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ed future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types of leisure activity,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satisfaction scale, factor analysis